http://dx.doi.org/10.35704/YJH.56.5

# 유라시아 문학공간의 종교성 : 부랴트 작가 바토자바이와 에르드이네예프를 중심으로*

김영란**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바토자바이의 종교성 : 불교적 정신과 '카르마(карма)'
2. 에르드이네예프의 종교성 : 샤먼적 정신과 '세에르сэр'
Ⅲ.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의 북아시아 공간, 그중에서도 부랴트 작가들의 문학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한 연구이다. 부랴트 지역문화에 나타난 종교성을 살펴보면, 부랴트인들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샤머니즘을 믿어왔고 17세기 이후 해당 지역으로 불교, 정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교 및 신앙체계가 도입된다. 오늘날 부랴트인들의 주도적인 종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3243)
**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강사

성은 불교와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랴트 문학은 창작과 연구사 모두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움트기 시작한 '젊은' 문학이다.

본 연구는 부랴트 작가인 바토자바이의 『빼앗긴 행복』(1967)과 에르드이네예프의 『부랴트에서의 하루』(2013)를 대상으로 부랴트 문학에 나타난 종교성을 알아본다. 바토자바이는 20세기 소비에트 시기를 살았던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근저에 '불교적' 정신과 '카르마карма' 테마가 깔려있긴 하지만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종교성은 민족적 자주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바토자바이의 종교 태도는 '수평적' 특성을 보인다. 그에 반해 에르드이네예프는 21세기 현재 활동중인 작가로서 '샤먼적' 정신과 '세에르сэр' 테마가 주도적이며 인물형상과 구조에서 모두 강한 종교성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종교 태도는 '수직적' 특성을 보인다. 결국 바토자바이의 종교성이 소설에서 사상적 근원으로써 작품 전체에 걸쳐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변주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에르드이네예프의 경우 종교성은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복잡하게 소설의 의미론에 관여한다.

이처럼 북아시아 지역은 종교적 혼종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바, 앞으로 유럽 지역의 종교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결국에는 유라시아 문학 공간에 나타난 종교성을 규정하는데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종교성, 북아시아, 부랴트, 샤머니즘, 불교, 바토자바이, 에르드이네예프

## Ⅰ. 서론

이 글은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의 유럽 지역(европей ская часть России)과 북아시아 지역(азиатская часть России)의 문학공간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한 연구 중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북아시아[1], 그중에서도 몽골계 부랴트[2] 문학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한 연구이다. 하나의 대륙에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적 경향이 혼재해있는 유라시아 공간으로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민족[3] 출신 작가들과 그들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각각의 지역에 나타난 종교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유라시아 문화공간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사상적 의미를 고찰하려는 첫 시도이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와 연결되어있는 유라시아 공간에 나타난 다양한 종교성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 문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여러 시도 중의 하나이다.

---

1) 북아시아에는 다양한 공간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치적 의미에서는 '우랄, 시베리아, 극동'이, 역사·지리적 의미에서는 '시베리아, 극동'이 포함된다. 역사적 광의의 개념에서 시베리아란 우랄산맥 동쪽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즉 북아시아란 서시베리아-동시베리아-극동을 의미한다.

2) 부랴트(Buryadd)인은 러시아에서 '부랴트(Buryat)', 몽골에서 '보리아드(Boriad)' 등으로 불린다. 현재 가장 많은 부랴트인이 거주(520,000명)하는 러시아연방의 부랴티아 공화국에서 부랴트인들은 스스로를 '부랴트'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부랴트'라고 표기할 것이다. 부랴트라는 표기와 관련하여 부여(夫餘)와의 연관성에 대한 글은 다음을 참조할 것:정택성, 「부랴트와 부여(夫餘)의 연관성에 대한 단상」.

3) 북아시아 소수민족은 북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 '러시아연방'에 속해 있다. 그들은 16세기 말 러시아인이 시베리아로 진출하기 훨씬 오래 전부터 북아시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체들이다. 북아시아 원주민은 1924년 전(全)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및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소수민족'의 지위를 받았는데 이는 근대화 수준이 낮은 민족들을 사회주의변혁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는 정책에서 나온 전략적 산물이다. 이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북방소민족', '북방소수민족' 등으로 불린다. 현재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5만 명 이하 민족, 2) 전통적인 생업종사 민족(목축, 수렵, 어업, 모피수렵업), 3) 유목민족(유목, 반유목, 반정착민족), 4)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민족, 5) 토착어 사용 민족 등. 사회주의가 붕괴된 오늘날 북아시아의 '공식적인' 소수민족은 교육, 문화, 의료, 식품, 교통 등 사회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혜택과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혜택 밖에 있는 민족들의 입장이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수민족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공식 목록에서 해제하고 있다. 즉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소수민족 목록 또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 김영란, 「북아시아 소수민족의 문화혼종성 : 부랴트인의 종교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제51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기 부랴트 작가 바토자바이(Д.Батожабай;1921-1977)와 21세기 현재도 생존한 채 여전히 활동 중인 부랴트 작가 에르드이네예프(А.Эрдынеев;1955- )이다. 소수민족 출신인 두 작가에게서 종교성이 어떠한 종교 혹은 신앙을 중심으로 발현되는지, 또 그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흔히 종교성이란 넓은 의미로 종교 혹은 영적인 내용이나 과정에 대한 태도, 신념, 동기, 추구 혹은 행동으로 정의된다. 종교성(religiousness/religiosity)과 영성(spirituality)은 둘 다 인간의 신성(sacred)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지만 종교성은 특정 종교 체계 속에서 종교적 독트린, 종교의식, 종교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신성 추구를, 영성은 개인적 경험으로서의 신성 추구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한 종교의 체계 속에서 개인의 영성 추구를 포함하고 인간의 종교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은 종교성에 대한 고찰이 북아시아 문학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러시아라는 지역공간을 이해하는 데 한 가지 길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랴트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불교적 정신과 샤먼적 정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그를 위해 우선 부랴트 지역의 문학과 함께 부랴트 지역의 종교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북아시아 지역 문학은 문학사와 연구사 모두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러시아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여러 질곡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풍습이 상당 부분 사라지거나 잊혀졌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문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부랴트 문학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몇몇 작가, 시인들에 의해 하나, 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며, 특히 소설은 20세기 중반 이후 적지 않은 수의 장편소설이 등장한다.

나이다코프(В.Найдаков)는 자신의 저서 『장편으로의 여정』(1985)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부랴트 문학에서 여러 편의 장편소설이 등장하는데, 이는 문학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당시 사회 발전과 인식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부랴트 문학에서 최초의 장편소설이 등장한 것은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이지만(1949년의 투무노프(Ж.Тумунов), 1950년의 남사라예프(Х.Намсараев)), 1930년대에 장편소설은 이미 여러 작가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하지만 당시 소련체제의 사회적 격랑 속에서 안타깝게도 작품 원고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연구자 바야르투예프에 따르면 1934년에 이미 돈(Ц.Дон)은 삼부작 장편소설 『투우자 소오(Туужа соо)』(『소나무 숲에서』)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1937년 작가가 체포될 즈음에는 이미 삼부작의 첫 번째 책은 완성되었다고 한다. 당시 원고는 몇 부로 쓰여졌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단 한 부도 남아있지 않다. 다른 작가들(투이(С.Туй ), 반다론(Б.Дандарон))이 쓴 장편소설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이유로 해서 부랴트 문학에서 최초의 장편소설이 등장하는 것은 1950년대 즈음이 되고(투무노프(Ж.Тумунов), 남사라예프(Х.Намсараев), 츠이젠담바예프(Ч.Цыдендамбаев)), 그 이후 장편소설은 여러 작가에 의해 창작된다(Ж.Балданжабон, Ц-Ж.Жимбиев, Д.Эрдынеев, В.Митыпов).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부랴트에서는 거의 20여 편 이상의 장편소설이 발표된다. 이 시기 작가들은 이전의 선배 작가들의 영향 하에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형태의 작품을 쓰게 된다. 발부로프의 『노래하는 화살』(1962)은 전설(легенда)에서 그 소재를 차용한 형태이며, 바토자바이의 『빼앗긴 행복』(1960)은 '삼부작(трилогия)'이라는 장르의 역사소설이고, 미트이포프의 『불멸자들의 언덕』(1975)은 '소설 속 소설(роман в романе)'이라는 형태를, 그리고 짐비예프의 『흐름』(1979)은 '회상 소설(роман-ретроспектива)'이라는 장르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위 소설들에서 작가들은 민속적, 종교적, 신화적

사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줌과 동시에 작가마다 이를 문학적으로 독특하게 형상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짧은 문학의 역사와 함께 연구사 역시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이다. 문학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그 지역 출신의 몇몇 소수민족 연구자들에 의해 겨우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바토자바이와 에르드이네예프에 대한 연구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열악하다. 당연히 부랴트 문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단 한 편도 없다. 주로 부랴트를 포함한 북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신화, 설화, 민담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문학에는 작품성과는 별개로 해당 민족 고유의 풍습과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혹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작가의 문학공간에 나타난 종교성에 대한 연구는 유라시아 문화공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부랴트를 포함한 북아시아 지역에서 종교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흔히 시베리아로 알려진 광활한 북아시아에는 여러 토착민족들이 살지만 그들 전체의 숫자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북아시아는 튀르크계, 몽골계, 만주-퉁구스계, 핀계 등의 다양한 민족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고유한 풍습과 믿음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광활한 영토에서 목축, 수렵, 어로, 채집 생활을 해나가며 북아시아 지역 공통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북아시아 소수민족들에게서는 민족적,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성, 세계관에서는 공통점, 혹은 비슷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부랴트인들이 살고 있는 북아시아 바이칼지역은 특히나 다양한 종교가 상호 공존하는 공간이다. 16세기 말 러시아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북아시아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종교 문화에서 그것은 독특한 혼종성으로 드러난다[4]. 부랴트인들에

게서 샤머니즘과 라마불교는 부랴트인임을 증명해주는 민족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부랴트 공화국의 경우 서부랴트에서는 샤머니즘이, 동부랴트에서는 라마불교가 주도적이다. 이후 러시아인들과 함께 기독교(정교)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서부랴트에서는 샤머니즘과 정교의 혼종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동부랴트에서도 역시 주요 종교인 라마불교에 전통종교인 샤머니즘의 여러 특성이 혼종되어 나타난다. 불교는 17세기 초 몽골과 티베트로부터 부랴트에 들어왔다. 이때 불교는 상당 부분 부랴트 지역 문화에 동화되었고, 전통적인 샤먼적 신앙을 흡수하였다. 불교는 타 종교나 신앙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노력한다. 이볼긴 수도원의 라마승에 따르면, "만일 이러저러한 종교가 인간에게 기쁨과 정신적 평안을 가져다준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평화가 깃들어야하는 것이지요."[5] 동부랴트, 즉 자바이칼 지역, 그리고 프리바이칼의 혼고도르인들에게서 주된 종교는 라마불교이다. 18세기 즈음이 되면 라마불교가 이미 부랴트인들의 의식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처럼 동부랴트에서 샤머니즘은 18세기 중엽 불교에 주도적 위치를 내어주고 그 영향력은 상당부분 약해졌지만, 서부랴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도 일부 지역에 남아있을 정도로 최근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았고, 1990년대 소련방 해체 이후에는 부랴트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6] 서부랴트인들이 샤머니즘을 자신들의 전통종교로 여기며 자

4) 부랴트의 종교문화에 나타난 혼종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는 참조할 것 : 김영란, 위의 책, 2017.
5) Абаева Л.Л. *Буряты* М., 2004. p.342.
6) 이처럼 서부랴트에서 샤머니즘이, 동부랴트에서 라마불교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1897년 실시된 부랴트 지역의 종교 조사를 나타내는 아래 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표1] 19세기 말 동·서부랴트인의 종교

| 지 역 | 샤머니즘 | 라마불교 | 러시아정교 |
|---|---|---|---|
| 이르쿠츠크 구베르니야(서부랴트) | 51,892 | 11,526 | 45,859 |
| 자바이칼(동부랴트) | 2,680 | 165,215 | 11,954 |

신들을 '샤먼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18세기 중반 이후 동부랴트인들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불교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서부랴트인들이 샤머니즘을 믿으면서 러시아 정교 세례를 받으면서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동부랴트인들은 비록 라마불교가 근래인 17세기~18세기 이후에 전파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전통종교로 여기고 있으며 외래 종교로 간주되는 러시아 정교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부랴트 문화에서 종교, 즉 샤머니즘과 불교는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이다. 부랴트 지역에서 이 두 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모두 외래종교로서 외래종교를 믿는 부랴트인은 부랴트인의 정체성을 '의심' 받게 된다. 이 때 부랴트인들이 러시아 정교를 대하는 태도에는 독특한 점이 관찰된다. 러시아 정교 역시 외래종교이지만, 부랴트인들에게 있어서 정교는 '국가'의 종교이다. 즉 러시아 정교는 외래종교이지만 '민족' 위에 군림하는 '국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랴트인들은 러시아 정교를 기성종교로 인정하고 정교도 부랴트인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 부랴트인들은 러시아 '국가'의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부랴트 '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부랴트인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인과 같은 러시아 국민이면서 동시에 러시아인들과는 구별되는 부랴트인임을 강조한다. 때문에 국가 종교인 정교를 믿는 부랴트인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교도 부랴트인이라 하더라도 샤머니즘이나 불교를 '함께' 믿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부랴트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의심받게 된다. 하지만 유일신 사상을 엄격하게 따르는 개신교 신자인 부랴트인은 동시에 다른 종교를 함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랴트인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부랴트인의 전통과 영혼을 배신했다고 여기며 인정하지 않는다.

[표2] 부랴트인의 종교[7]

| 종교명 | 범 주 | 인정여부 | 유입시기 | 유입지역 | 신자 분포 |
|---|---|---|---|---|---|
| 샤머니즘 | 전통종교 | ○ | 자생 | 자생 | 주로 서부랴트 |
| 라마불교 | 전통종교 | ○ | 18세기 초 | 몽골, 티베트 | 주로 동부랴트 |
| 러시아정교 | 외래종교 | ○<br>(기성종교) | 17세기 중 | 러시아 | 주로 서부랴트 |
| 프로테스탄트 | 외래종교 | X<br>(이단종교) | 20세기 말 | 한국, 미국,<br>핀란드 | 동·서 부랴트 |

부랴트인들은 부랴트인의 종교가 샤머니즘과 라마불교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랴트인이 아니다'라고 까지 말하기도 한다. 이는 현대 부랴트인의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대 부랴트 사회에서 샤머니즘과 라마불교가 부흥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부랴트에는 독특한 종교적 혼종성이 형성되었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종교 및 교파, 단체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 지역 종교의 혼종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부랴트인들은 330여 년 전 러시아에 복속된 후 러시아에 동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하며[8]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타문화 및 종교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지니려고 노력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랴트족의 주도적인 종교 및 문화 코드는 샤머니즘과 불교이다. 부랴트인의 생활 속에는 그들 전래의 종교라 할 수 있는 샤머니즘의 바탕 위에 불교적 요소, 기독교적 요소가 뒤섞여 공존하는 이중, 삼중 신앙의 형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 신화, 부족 신화, 슬라브 신화가 혼합된 형태로 잠재되어있는 바 이는 새로운 차원의 '융합' 문화라고 할 수 있다.[9] 부랴트족에게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샤머니

7) 전봉수, 「부랴뜨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2쪽.
8) 전봉수. 위의 책, 6쪽.
9) 박태성·김선진,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異敎 문화 : 부랴뜨인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11권/제1호, 한국노어노문학회, 1999, 370쪽.

즘과 불교는 긴밀하게 상호 융합된 특징을 지닌다. 두 종교는 민간계층의 살아있는 종교로서 정서적 불안 해소와 삶의 희망을 북돋우면서 민중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랴트 작가들의 창작에서는 자연세계의 조화로운 인식 모델(модель гармонич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природного мира)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모델로서의 세계인식은 부랴트 민족의 의식 속에서 변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면면히 남아있는데 이는 불교와 샤머니즘의 기반 때문이다. 불교와 샤머니즘에는 인간과 자연이 영혼적으로 하나라는 원칙이 담겨져 있다[10]. 부랴트 문학에서 종교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이미 그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투무노프의 『스텝이 깨어났네(Степь проснулась)』에서 주인공 드일게르는 20세기 초 내전이 한창이던 시기 적군과 백군 중에서 어느 한 진영을 선택해야만 할 때 용기 있게 "중도"의 길,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붓다의 길'이다.

북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부랴트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가로는 바토자바이(Д.Батожабай )와 에르드이네예프(А.Эрдынеев)가 있다. 두 작가는 북아시아 민족 중에서 몽골계인 부랴트족 출신이며 현대 러시아/소비에트 문화공간과 부랴트 문학을 대표한다.

소비에트 시대를 살았던 바토자바이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종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주로 부랴트족의 전통적인 '불교적' 믿음이 슈제트의 근간을 이루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현대 생존 작가인 에르드이네예프 문학에는 종교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샤먼적' 믿음을

10) Данчинова М.Д.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 Бурятии("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 А.Эрдынеева, "Легенда о шамане" Г.Аюрзаны)", *Вестник БГУ. Философия.* – 2016. №5. Филология. Филология. p.29.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적, 신화적 모티브가 등장하여 작품의 종교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바토자바이와 에르드이네예프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 작가들이 그렇듯이 문화적 혼종성과 다양성이라는 창작 특징을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형상화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두 작가의 문학공간에 나타난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 및 독창성 연구는 유라시아 문화공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Ⅱ. 본론

### 1. 바토자바이의 종교성 : 불교적 정신과 '카르마(карма)'

바토자바이가 1959년부터 1965년까지 창작하여 완성한 역사소설『빼앗긴 행복(Тееригдэвэн хуби заян, Похищенное счастье)』(1967)은 부랴트어로 쓰여진 작품[11]으로 부랴트 문학사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작품 중의 하나이다. 부랴트 문학사에서 최초의 삼부작 역사소설인『빼앗긴 행복』은 현재까지도 지역문학계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작품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작품의 역사적 규모와 공간적 규모 면에서도 그러하다. 작품은 부랴트 지역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몽골과 티베트, 런던, 베를린, 베이징과 도쿄, 페테르부르크와 치타에 이른다. 소설은 최초의 민족적 역사 대서사시로서 민족 정체성, '민족의 혼'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

11) 북아시아 소수민족 작가들은 주로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축치족 르이테후Ю.Рытхэу), 러시아어와 자신의 민족어, 양쪽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에벤키족 켑투케Г.Кэпткэ, 니브흐족В.Санги). 현재 북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숫자가 갈수록 적어질 뿐 아니라 그들의 민족언어 역시 점차 소멸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 자신들의 민족 언어로 작품을 쓰는 소수민족 작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바토자바이와 같은 선배 작가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바토자바이는 이 작품 속에서 부랴트 민족의 삶을 광범위하게 보여주고자 노력하며 타자의 문화를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또한 작품 속에는 역사적, 민속적 사료에 근거하여 여러 민족들이 지닌 고유의 모습을 재현하는 바,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부랴트 민족의 형상이며, 실존 인물들도 등장한다[12]. 세기말 역사적 변혁의 시기와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소설 장르인 이 작품은 보편타당성의 교리로 동양 문명의 정신적 정화를 대표하는 '불교성'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이미 그 첫 번째 책(первая кн.)에서 작품의 기본 사상을 의미하며 사건의 공간이 점차 동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희 헬세데그(Бухы хэлсэдэг)" 즉 "모든 길은 티베트로 통한다고 티베트 승려들은 말하지"라는 화자의 말에서 우리는 작가가 근본적으로 서구 중심적, 유럽 중심적인 사고에 대항하여 동양적 사고와 그를 대표하는 불교의 사상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어 번역본이 아닌 부랴트어로 쓰여진 원본에서 바토자바이는 불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속세의 삶은 고통이지만, 만일 니르바나 상태를 원한다면 행복을 찾을 것이다. 누군가 인내심이 있고, 신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니며, 욕망이 적다면, 그는 니르바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13] 작가는 불교적 사유 체계를 통해 부랴트족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세계와 인간에 대한 민족적 관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바토자바이 소설은 역사 소설로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세기말의 혼란한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채 창작되었다. 이 때 종교성은 부랴트인을 포함한 북아시아 소수민족들의 세계관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12) Серебрякова З.А. "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романе Д.Батожабая Похищенное счастье",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естник Филология.* 10/2013. pp.24-28.

13) Батожабай Д-Р.О. 『Похищенное счастье』. [Текст]/Д-Р.О.Батожабай .-Улан-Удэ, 2002. p.56.

서 이정표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기에 소설에서 불교 승려들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된다. 당시 부랴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지녔던 승려들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작품이 출간된 이후 바토자바이는 부랴트 불교계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며 작가 스스로도 이에 대해 자주 언급하곤 했다.

불교는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극복의 대상이거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며 마주 선 상대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은 한 몸이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14]. 불교는 자연을 중생이라 부르는데 인간은 그저 모든 중생들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대승불교에서는 나무나 돌마저도 불성(佛性)을 가진 일체중생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불교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를 차별적으로 보지 않는다.

부랴트 문학에서 종교적 모티브는 항상 존재했지만 그러한 모티브가 드러나는 정도라든가 구체화되는 특성은 각각의 시기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 역사적, 역사 문학적 상황에 따라 또 개별 작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나 바토자바이가 살았던 20세기 소련/러시아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였기에 '종교는 마약'이었고 소수민족은 '소비에트 인민'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었다. 부랴트인들 역시 끊임없는 탄압과 숙청의 두려움 속에서 종교적 테마나 민족적 색채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었다. 하지만 바토자바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작품 속에 다양한 모티브, 상징과 함께 불교적 모티브와 상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기여도를 발견할 수 있다.

바토자바이 작품은 불교적 사유체계 위에 형성되어 있다.[15] 작가는 불

14)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2.

15) Доржиева Э.С. "Этнопоэтические истоки сюжетосложения бурятского романа 60-80-х гг. XX века", Дис.на соиск.уч.степ.кандидата филологич.наук, Улан-Удэ, 2019. с.12.

교적 해석이 가능한 여러 의미소들을 끌어와 작품의 기저에 불교적 정신을 형상화하는 바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설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소설의 제목은 흔히 작품의 주제 및 사상을 보여주는데 바토자바이의 작품 역시 제목 안에 작품의 종교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제목은 부랴트어로 『Тээригдэһэн хуби заян』인데 이를 러시아어로 의역하면 『빼앗긴 행복』이지만, 직역을 하게 되면 『길 잃은 운명(Заблудившаяся судьба)』 혹은 『길 잃은 영혼의 일부』가 된다. 러시아어로 직역하면, "길 잃은 운명(Заблудившаяся судьба)", "길 잃은 일부, 운명(Заблудившаяся доля, судьба)", "길 잃은 영혼(Заблудившаяся душа)"이다. '영혼'과 '운명'이 '방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당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격변의 세기를 살아가는 부랴트인들이 저마다 다양한 '영혼의 방황(блуждания души)'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그들의 인생을 규정짓는 세계관은 바로 불교적 사유체계인데 이 때 불교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성향 혹은 제도종교의 정전을 벗어나 공식적/비공식적인 종교 영역의 안팎에 포진한 다양한 세계 해석들을 받아들이고, 이에 기반을 둔 채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이겨내려는 종교적 실천들이라는 특징을 의미한다.

바토자바이 작품에서 '행복추구의 길' 모티브는 운명의 본질에 대한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 더욱 풍부해지고 더욱 완벽해진다. 때문에 작품에는 신(령), 정령과 관련된 여러 종교적 일화들과 작가적 설명이 삽입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작품에서 중요한 사상적 근원이 되는 보디사트바(Бодисатва)에 대한 이야기로서 부랴트인들에 따르면 그는 부모를 거역하는 인간을 벌주는 신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등장인물이 불가피하게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로써 고통을 받게 된다는 고통의 테마를 발전시킨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모의 명령을 거역한 알람지의 행동과 '죄' 모티

브는 작품 슈제트 구조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바토자바이는 보디사트바에 관한 종교적 언급으로부터 소설을 시작하는데 이는 이후 주인공 알람지의 모든 행동의 의미에 대한 작가적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기본적 세계관은 윤회이다. 그리고 이 윤회를 통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생전의 카르마(업보)인데 이 때 카르마란 생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낀 모든 행위의 결정체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있고 그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의 각 단계에서 '약간'은 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주인공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카르마를 바로 잡기 위해 즉 자신의 운명을 올바른 길로 향하도록 노력한다. 불교에서 카르마란 '업'이다. 내가 하는 행동, 말 등이 쌓여 결과를 만들어내고 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생애도 이어지게 된다. 개개의 카르마는 가문으로, 사회로, 국가적 카르마로 연결되어있다.

알람지(Аламжи)의 여정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제목의 또 다른 해석도 흥미로운데, 바로 『길 잃은 영혼의 일부』이다. 산가지예바에 따르면, 부랴트인들이 믿는 불교에서는 '자유로운 영혼' 혹은 '얇은 육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잠을 잘 때나 병이 났을 때 혹은 심하게 놀랐을 때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일시적으로 분리될 수 있고, 이 영혼이 육체와 최종적으로 분리될 경우 인간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한다.[16] 하지만 이와 같은 믿음은 오히려 불교 보다는 샤머니즘이나 민간신앙과 더욱 관련된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랴트인들이 믿는 불교가 샤머니즘과 긴밀하게 연관된, 좀더 정확히 말하면 '샤머니즘화'된 불교적 믿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종승은 몽고 부랴트의 샤머니즘과 불교의

16) Сангадиева Э.Г. "Концепция мира и человека в бурятском романе 1960-1970 годов", дис. канд. филогич.наук., Улан-Удэ, 2004.

융합을 언급하는데 “부리야트의 샤머니즘은 샤머니즘적 모티프를 기본으로 티베트의 불교인 라마교를 민간신앙화해서 수용”[17]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랴트인에게 있어서 영혼의 상실은 자연히 인간의 지상 삶, 운명 뿐 아니라 사후 삶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는 중요한 종교적 믿음이다. 이처럼 소설의 주요 주제중의 하나인 행복, 운명, 영혼은 무엇보다도 심오한 종교적 맥락에서 이해된다[18].

불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불교는 세상사에 있어서 우연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필연(必然)이라고 말한다. 즉 인과의 법칙에 의해 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바토자바이의 작품에서 고통과 속죄라는 종교적 모티브는 주인공 알람지의 삶과 행동을 통해 형상화된다. 작품에서 주인공 알람지의 삶을 시련으로 이끄는 최초의 ‘죄’가 되는 행동은 바로 ‘부모/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며, 이는 이후로 작품의 갈등을 이끄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부모 말씀 거역 죄’란 흔히 과보를 받아야하는 원인이 되는 행동, 즉 ‘죄’라고 하기에는 그리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랴트족 전통사회에서 부모의 말은 ‘신성’한 것이다. 하지만 알람지는 아버지가 결혼하라는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그에 대해 제단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불에 지지는 ‘속죄’ 의식을 거행한다. “알람지는 오른손 중간 손가락을 헝겊으로 동여맨 다음 손가락에 기름을 붓고 나서 불에 가까이 갖다댄다. 기름에 흠뻑 젖은 헝겊에 순간 불이 붙었다. 그 즉시 알람지는 손가락에, 아니, 오른 팔 전체에, 온 몸 전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고함을 지르고 불에서 손을 빼내고 손가락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알람지는 샤랄다이 집의 헛간에서 살고 있는, 천애

17) 이종승, 『영화와 샤머니즘-한국적 환상과 리얼리티를 찾아서』, 살림출판사, 2005.
18) Сангадиева Э.Г. op.cit. 참조.

고아인 잘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묵묵히 견뎌냈다"[19] 부랴트 사회에서 가장 중한 범죄로 여겨지는 부모 거역죄를 지은 알람지는 신실한 불교 신자로서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했다. 그래서 그는 '보디사트바'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에 '살아있는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함으로써 속죄 행위를 한 것이다. 보디사트바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신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신으로부터 천벌을 받지 않으려면 보디사트바의 형상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성스러운 등불을 밝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20]

이처럼, 알람지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부모 거역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인공은 속죄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불에 타게 하는 극심한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속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삼부작의 마지막에 알람지는 아들과 만나게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 모두 서로를 이해하거나 화해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불교에 따르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알람지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은 '원인'이 있기에 그는 여러 고난을 겪은 것이고 결국 본인 역시 자신의 아들과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 것이다. 즉 알람지가 겪고 있는 고난은 불교에 따르면 인과의 결과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카르마는 작품의 주요 플롯을 이루는 근간이다. 즉 과거에 카르마가 있었기에 현재에 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불교의 의미와 정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바 이때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고통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고통의 정전은 '네 가지 진리'에 의해 조건화되는데 이는 고통의 진리, 고통 발생의

19) Батожабай Д-Р.О. 『Похищенное счастье』. [Текст]/Д-Р.О.Батожабай .-Улан-Удэ, 2002. p.57.
20) Батожабай Д-Р.О. op.cit. p.13.

진리, 고통 중지의 진리, 그리고 고통중지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종교적 정전이 소설『빼앗긴 행복』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고통 모티브는 작품 전체에 걸쳐 나타나며, 주요 인물들인 알람지, 나반-친기스, 잘마 등 대부분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통을 당한다.

알람지는 신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로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알람지는 신을 두려워하고 신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바 이것이 바로 부랴트인들이 이해하는 '불교적 정신'이며 그들의 오랜 습관과 문화에 의해 채색된 독특한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성을 드러내려는 작가적 의도라고 할 수 있다.[21]

## 2. 에르드이네예프의 종교성 : 샤먼적 정신과 '세에르сээр'

에르드이네예프А.Эрдынеев(1955- )는 현존하는 작가로서 현대 부랴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이르쿠츠크 대학 외국어학부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로 진출, 모스크바 언어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부랴트로 돌아와 부랴트 국립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활동을 하였다.

단치노바는 에르드이네예프의 소설『부랴트에서의 어느 날(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2013)에서 작가는 샤머니즘적 본질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고 규정한다.[22] 엘리아데에 따르면, 샤먼이란 "신이나 영들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지닌 자로서 샤먼은 신과 영들을 대면하고, 대화하며,

---

21) Серебрякова З.А. Бурятский роман 1940-1980-х гг., p.29.

22) Данчинова М.Д.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 Бурятии(『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 А.Эрдынеева, 『Легенда о шамане』 Г.Аюрзаны), p.29.

기도하고, 애원하는 자이다. 그러나 샤먼은 모든 신과 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과 연결된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을 뿐이다"[23]. 즉 샤먼은 영과 접촉하고 접신을 할 수 있는데 샤먼은 영적 엑스타시를 통해 신과 영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쉬로코고로프는 샤먼의 정의를 좀더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모든 퉁구스 언어에 샤먼이라는 용어는 남녀 구별 없이 영적 실체들을 이해하는 존재들로서 샤먼은 자신의 의지로 다양한 영들을 초대하기도 하며, 자신의 관심에 따라 영적인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자이다. 샤먼은 영적 실체들을 다루는데 특별한 방법론을 습득한 자로서 주로 고통당하는 타인을 위해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치유자이다."[24]

안토노프는 에르드이네예프의 소설『부랴트에서의 어느 날』에 대한 자신의 논문 제목을, "태고로부터의 신앙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설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안토노프에 따르면 이 소설은 인간이 오래전부터 믿어온 신앙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그 기나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체 서사구조의 의미구조를 지탱하는 기반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원초적인 순수한 믿음/신앙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태초로부터 내려온 원시신앙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주인공은 위대한 정령들, 즉 대양과 바다, 산의 태초로부터의 주인과 보호자들인 위대한 정령들에 대한 숭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직 이 오래된 신앙만이 현재 분열된 인류를 결속시킬 수 있고 인류를 총체적인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25] 그래서 주인공은 부랴트 정령 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정령, 몽골 정령, 스칸디나비아 정령, 아프리카 정령들과 같은 다양한 정령들과 상

23) Shamanism, p.88.
24) Shriokogoroff S.M. p.269.
25) Эрдынеев А.『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 Таежная, озерная, степная: произведения бурятских ученых и писателей : в 15 т. Улан-Удэ, 2012. Т.10. p.589.

호 교류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양적, 아시아적 세계관에서 그와 같은 인간적 이해는 '샤머니즘적 다신주의(шаманский политеизм)' 형태로 형상화된다.

이 때 작품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윤리적 근원으로 '세에르(сээр)' 개념이 있다. 이 법칙은 오랜 옛날부터 부랴트인들이 믿어왔던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근거였다. 바로 이 '세에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행동 규칙을 표현하는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26] 부하예바는 부랴트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며 또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적-문화적 언어-형상(национальн о-культурные слова-образы)'을 분석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얀(буян), '선행 혹은 덕행добродетель', 둘째 세에르(сээр), '금지 혹은 죄грех', 셋째 쉬 하안찌쉬(ши хаантиш)? '너는 (고향이 혹은 종족이) 어디 출신이야ты откуда родом?', 넷째 하마아 우긔(хамаа угы), '상관없어, 별거아냐не важно, все равно.'[27]

단어 '세에르'는 부랴트어 '부얀буян(선행 혹은 덕행)' 개념과 비교된다. 부랴트인들은 흔히, '누겔 부얀 호요르 아하 두우(Нугэл буян хоер аха дуу)' 즉, '터부(혹은 죄)와 선행(혹은 덕행)은 친 형제지간이다'라고 말한다. 이 때 부랴트인들이 생각하는 '세에르'란 종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도덕적, 종교적 가치들을 지키지 않는 여러 행위들을 의미하는 바 여기에는 탐욕, 게으름, 공격성과 함께 정령들에 대해 인간이 행하는 다양한 과실, 실책, 죄행들이 해당된다. 부랴트인들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

26) Егодурова В.М. "Шаманская лексика как отра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бурят о законах бытия", *Евразийский фронтир: литература и религия в диалоге культур.* Улан-Удэ, 2014, с.135.

27) Бухаева Р.В.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стереотип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на материале бурятского язы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на соиск. уч.степ.доктора филологич.наук, Улан-Удэ, 2015. p.16.

우해드려야 하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며, 결국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살인과 도덕질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죄'들, 즉 실책이나 과실, 터부가 되는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세에르'란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부랴트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생명력에 있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한다(шадал угы, '영혼이 없다нет души'). 예고두로바는, "세에르의 의미 속에는 우주만물의 최고 법칙들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이러 저러한 인간 행동에 대해 최고 힘 혹은 최고 신(вышие силы)은 찬성 혹은 반대를 표시한다"[28]고 언급한다.

이처럼 단어 '세에르'는 문화적 의미론에서 마술적, 초월적, 샤먼적 의미를 지닌다. 체레미소프(К.М.Черемисов) 사전에서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지, 터부, 둘째 죄. 즉 '세에르'는 인간이 '우주 만물의 일부분으로써의' 자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에르드이네예프는『부랴트에서의 어느 날』을 통해 인간은 주변 자연세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타인들과 타집단을 존중하지 않으며 부랴트 민족 고유의 종교 문화적 전통을 지키지 않는 등, '세에르'를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이 작품은 종말론적 특징을 지니는 바 그 원인은 인간의 자연을 향한 '영혼적 태도의 부재' 때문이고 이는 종국에 가서는 영혼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 벌어지게 될 심각한 상황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조화로운 밸런스'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작가는 오직 인간이 세계

28) Бухаева Р.В. op.cit. p.149 재인용.
29) Бухаева Р.В. op.cit. p.150 참고.

와 내적 합일을 획득해야만 그와 같은 조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슈제트 구조에서도 드러나는데 단일한 공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회복시키고자하는 작가적 의도는 무엇보다도 인물 형상을 통해 구체화된다.

주인공 문코는 평범한 도시민으로 살던 어느 날 자기 출생의 비밀, 즉 자신이 고향의 정령 '바아바이'(Баабай )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문코는 또한 자신이 정령의 아들로서 잃어버린 순수의 정수, 조화의 정수를 회복시켜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깨닫는다.

문코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유체이탈, 아스트랄 투사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급격한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다. 육체 상태, 혹은 자신의 존재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한 뒤 문코는 영혼적, 세계관적 변혁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소설에는 부랴트족의 정령이 등장하는 동시에 더욱 광범위한 종교적, 영적 공간이 펼쳐지는 바 바로 심오한 '샤먼적 다신론'의 인식이다. 부랴트인의 정령 '바아바이'는 전체 자연세계의 파괴된 하모니를 회복시키기 위해 슬라브족의 신들인 페룬과 야릴로에게 도움과 조언을 요청한다. 또한 문코는 고대 그리스와 몽골, 아프리카의 다양한 신들과 교류한다. 소설에서 갑자기 슬라브 정령들이 등장하거나 혹은 타 지역의 다양한 신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인위적인 '설정'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는 명확하다. 단치노바가 지적한 것처럼, 작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는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결국 이 지구의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된 채 지구는 통일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품 속 다른 종교의 신들과 정령들이 등장하는 이유이다.[30]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은 다신성의 특징을 지니는 바 유일신을 주장하는

30) Данчинова М.Д, op.cit. p.31 참고.

기독교와는 정면으로 상치된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유일신 이외의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숭배를 강력히 금지함으로써 죽은 자는 추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숭배나 의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에 반해 샤머니즘(무속)은 다른 종교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정령이나 신들을 배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조상숭배 뿐 아니라 넓게는 불특정 다수의 원령을 달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에르드이네예프의 작품에는 샤머니즘의 본성을 통해, 그리고 인간 삶이 초월적 세계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 단치노바에 따르면, 작가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의 결과 벌어지게 될 심각한 상황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 태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조화로운 밸런스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직 인간이 세계와 내적 합일을 획득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31]

작품의 종교성은 순환성 혹은 근원으로의 회귀성을 통해 구체화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공간으로 귀환하는 '귀환 모티브'를 통해 단일 공간의 통일성이 구체화되는데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 작품에서 그와 같은 '지역적 공간'이란 바로 주인공의 토온토(тоонто; 작은 고향, 태어난 장소)이다. 그런 식으로 작가는 작은 일부로서의 개별적인 인간 삶을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단일 공간 속으로 포함시킨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작가의 창작관 속에서 주인공이 도달하는 그 공간은 언젠가 잃어버렸던 원초적인 근원지로 주인공을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격의 탄생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 융의 견해에 따르면, 그처럼 인간이 자신이 태어났던 근원지로 몰입하는 것은 핵의 발견이며 이때 우리 중심의 가장 핵이란 바로 자기이다. '존재의 중심'을 형성하며 나라는 것,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존재의

31) Данчинова М.Д. op.cit. p.29.

중심은 출발점으로서의 원형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은 신화적 근원을 향하며 자기 자신 안으로 침잠하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다.[32]

하지만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종교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인물 형상과 스토리를 통해서이다. 에르드이네예프는 주인공 문코의 임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처녀 탄생 신화'[33]를 도입한다. 이 때 작가는 기독교 모티브를 직접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들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설화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단군을 비롯해서 김알지나 박혁거세 등의 탄생기록이 나온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단군은 신의 아들인 환웅과 사람이 된 곰에게서 태어났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는 김알지가 금궤에서 나왔고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고 한다. 부처나 예수의 출생도 이와 비슷한 설화 혹은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에르드이네예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인공의 비범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동정녀 출생 신화'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문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 어렴풋이 듣거나 느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인지 아니면 선잠이 들었을 때 실제로 자신이 탄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문코는 자신이 아주 자연스럽고도 견고한 어떤 닫힌 공간에 있음을 느낀다. "마치 자장가처럼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들리고,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 문득 "이렇게 놀랍고 환상적인 세계를 영원히 떠나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인다.[34]

---

32) Юнг К.Г. Душа и миф. Шесть архетипов: пер.с англ. Киев, 1997, pp.20-21.

33) 에르드이네예프 작품에서는 다양한 신화적 상상력이 나타난다. 특히나, 탄생시키는 근원으로서의 대지와 관련된 사고는 상징적인데 '대지모'(大地母)의 형상은 다양한 의례, 민속 및 숭배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부랴트인들에게서 대지란 위대한 대지모 여신의 몸뚱아리이다. 그래서 대지를 날카로운 물체로 판다든가 나무를 부러뜨린다든가 혹은 풀이나 꽃을 뽑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랴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땅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태도를 배우며 자란다.

문코 역시 예수처럼 신(정령)과 처녀에게서 태어난 '신의 아들'로서 인간들이 '세에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황폐화된 이 세상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해야한다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게 되지만, 결국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소진된 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문코를 떠나보내는 아내의 희망찬 독백처럼 문코는 그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언젠가는 힘차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암시와 함께 작품을 끝을 맺는다.

## Ⅲ. 결론

21세기의 종교성은 초월적 세계와 일상적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지는 종교성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신만의 주관적 체험이나 자기 집단만의 집단주관적 체험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 내지 타 집단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종교성이 되어야한다.[35] 타자의 문화나 다른 종교를 믿는 집단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아닌,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절실한 요즘 부랴트인들의 종교성은 다양한 종교 및 신앙이 혼종된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러한 부랴트인들의 지역문화에 나타난 종교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또 짧은 역사를 지닌 부랴트 문학에 나타난 종교성을, 바토자바이와 에르드이네예프의 작품을 통해 알아보았다. 두 작가는 유라시아 문학공간인 러시아 문학에서 부랴트 문학을 대표하는 시베리아 소수민족 출신 작가들로서 그들의 문학공간과 종교성은 한편으로는 시베리아 혹은 바

34) Эрдынеев А. op.cit. p.549.
35) 한명희 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지사, 2007. 113쪽.

이칼 지역 공통의 문화코드가 주도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위코드가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며 독창적으로 형상화됨을 알 수 있다. 부랴트를 포함한 북아시아 공간의 종교성은 오랜 세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종교가 샤머니즘과 불교인 바 이는 두 작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하지만 그 기반 하에서 동일 공간 속 동일 민족의 작가들이라도 당대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또 작가 개개인의 창작적 경향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바토자바이의 작품에는 불교적 정신이 가장 밑바탕에 깔린 채 역사적 대서사의 스토리가 광활한 공간과 격변의 시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불교의 연기론적 사유와 '카르마'의 테마가 주도적인 바, 이는 부랴트인들의 원시적, 샤먼적 신앙과 혼종된, 그들만의 독특한 불교적 사유체계이다. 이에 반해 현대 부랴트 작가로서 지금도 활동 중인 에르드이네예프 작품의 종교성은 샤머니즘적 사유와 '세에르'의 규칙이 주도적인 바, 주인공 문코에게도 그런 샤먼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 문코의 샤먼 행위는 흔히 알려진 '영매(靈媒)'행위는 아니지만 신(정령)의 아들로서 어느 정도의 영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울러 자연의 실체(본성)와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에르드이네예프의 작품은 샤먼의 이야기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된 관심을 받고 있는 생태서사이기도 하다. 작가는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조화와 통일 속에서만이 진정한 존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바토자바이와 에르드이네예프의 작품은 동일하게 종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서사에서는 서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두 작품에서 종교성은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두 작가가 살아온 시대의 차이이다. 20세기의 역사적 격변기를 살았던 바토자

바이는 당시 소련방의 지배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종교적 주제를 강력하게 작품 속에서 형상화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태어나 현재 생존해있는 에르드이네예프의 경우 그와 같은 금지가 사라졌고 오히려 소련방 해체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복구하고자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부랴트인들의 전통신앙인 샤머니즘이나 불교와 같은 종교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바토자바이의 작품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약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근본 사상으로서 여기에서 구원은 수직적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동등 관계임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에르드이네예프의 작품에서는 샤머니즘과 원시적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기에서 인간은 샤먼의 인도에 따라 우주의 조화와 통일을 복구해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여기에서 구원은 수평적 동등 관계가 아닌 수직적 상하 관계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북아시아 문학공간의 종교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공통된 특징은 '조화'와 '구원'에의 강렬한 열망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아시아 공간의 종교성은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성향 혹은 제도종교의 정전을 벗어나 공식적/비공식적인 종교 영역의 안팎에 포진한 다양한 세계 해석들을 받아들이고, 이에 기반을 둔 채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이겨내려는 종교적 실천들이라는 특징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을 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학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첫 걸음으로써 앞으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을 통해 '북아시아 문학공간의 종교성'이라는 하나의 문화코드를 확립해나가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종국에는 유라시아 문학공간의 유럽지역과 북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종교성을 규정할 수 있고, 아울러 문화적 혼종성이 내재해있는 유라시아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란, 「북아시아 소수민족의 문화혼종성 : 부랴트인의 종교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제51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김철균, 「러시아 연해주의 자연과 사람 이야기:문학 서사와 그 영화적 변용」, 『동북아 문화연구』 제21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박태성·김선진,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異敎 문화 : 부랴뜨인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제11권 제1호, 한국노어노문학회, 1999.

신은희, 「몽골 소설 『샤먼의 전설』에 나타난 '네오샤머니즘'의 영성」, 『문학과 종교』 제18권 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3.

이종승, 『영화와 샤머니즘-한국적 환상과 리얼리티를 찾아서』, 살림출판사, 2005.

전봉수, 「부랴뜨인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과 기독교 환경윤리』, 대한기독교서회, 2002.

한명희 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지사, 2007.

Абаева Л.Л. *Буряты* М., 2004.

Батожабай Д-Р.О. 『Похищенное счастье』. [Текст], Батожабай Д-Р.О. Улан-Удэ, 2002.

Бухаева Р.В.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стереотипы речевого общения(на материале бурятского язы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на соиск. уч.степ.доктора филологич.наук, Улан-Удэ, 2015.

Данчинова М.Д. "Особенн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соврем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 о Бурятии("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 А.Эрдынеева, "Легенда о шамане" Г.Аюрзаны)", *Вестник БГУ. Философия.* - 2016. №5. Филология. Филология.

Доржиева Э.С. “Эволюция сюжентных структур романов Бурятии”, *Вестник ЧитГУ* No.2(53).

Доржиева Э.С. “Этнопоэтические истоки сюжетосложения бурятского романа 60-80-х гг. XX века”,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на соиск.уч.степ.кандидата филологич.наук, Улан-Удэ, 2019.

Егодурова В.М. “Шаманская лексика как отраж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е дставлений бурят о законах бытия”, *Евразийский фронтир: литература и религия в диалоге культур.* Улан-Удэ, 2014,

Сангадиева Э.Г. “Концепция мира и человека в бурятском романе 1960-1970 годов”, автореферат дис.на соиск. уч.степ.канд.филол. наук, Улан-Удэ, 2004.

Серебрякова З.А. “Национ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 романе Д.Батожабая Похи щенное счастье”, *Вестник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естник Филология.* 10/2013.

Эрдынеев А. 『Однажды в Бурятии』, *Таежная, озерная, степная: произведения бурятских ученых и писателей : в 15 т.* Улан-Удэ, 2012. Т.10.

Юнг К.Г. *Душа и миф. Шесть архетипов: пер.с англ.* Киев, 1997,

<Abstract>

# Religiousness of Eurasian Literary Space : A Study of D. Batozhabai and A. Erdyneev

Kim, Young-ran

The article is a study on the religious nature of Russia's North Asian space with Eurasian identity, among other things, in the literature of Buryat writers. Buryatians have traditionally believed in Shamanism for a long time and since the 17th century, various religious and religious systems, including Buddhism, Orthodox and others, are introduced. Among them, the leading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the Buryatians are Buddhism and Shamanism.

This is Buryat writer D. Batozhabai's "Stolen Happiness" (1967) and A. Erdyneev's "Once Upon a Time in Buryatia" (2013) religious character in Buryat literature. D. Batozhabai was a Soviet-era writer in the 20th century, and his work was based on an underlying spirit of Buddhism and the theme of "карма". On the other hand, A. Erdyneev is the dominant theme of the "Shamanian" spirit and the "сээр" theme, both in character shape and structure, showing strong religious character.

As such, the North Asian region features religious hybridity. Looking

at the religious nature of the European region in the future, it will eventually serve as the basis for defining the religious character that appears in the Eurasian literary space.

Key words : Religiousness, North Asia, Buryat, Shamanism, Buddhism, D.Batozhabai, A.Erdyneev

**김영란**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강사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전자우편: ruyran@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2월 29일 투고되어 2020년 4월 1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0년 4월 8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